

' 90년대 시장개방과 적극적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급속 성장



이 명 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현재 세계 축산물 시장은 생산·가공·유통의 통합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축산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 예로 브라질 JBS는 규모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칠레 아그로수퍼는 완전통합경영을 통한 저렴한 비용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축산업은 그간 축산인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금의 위치까지 성장했으나, 대규모 축산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 축산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 축산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브라질 및 칠레의 축산업과 주요기업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 90년대 시장개방과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급속히 성장

브라질과 칠레 축산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90년대 시장개방과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급속히 성장했다는 것이다.

칠레는 대외 개방적 정책 기조하에 WTO 출범과 FTA 체결을 통한 적극적인 자유무역 정책으로 축산물 수출 확대 계기를 마련하여 지금은 57개국, 21개 협정을 체결한 세계 2위의 FTA체결국이다. 이러한 정책 환경 하에서 축산 기업들은 양보다 질의 가치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제 시장의 고품질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9년 칠레의 돼지고기 수출액은 383백만 달러로 지난 10년간 8배나 증가하였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2009년 47천톤이며 금액으로는 115백만달러이다. 국가별 수출비중을 보면 한국은 31%로 일본(34%) 다음의 주요 수출국이다. 2009년 닭고기 수출액은 260백만달러로 주요 수출국은 EU(수출비중 40%), 멕시코(31%), 미국(9%) 등이다.

〈표 1〉 2009년 브라질의 축산물 생산량 및 수출량

(단위 : 천톤, %)

품목	생산량	세계 비율	수출량	세계 비율
쇠고기	8,935	15.7 (2위)	1,596	22.0 (1위)
돼지고기	3,130	3.1 (4위)	707	12.5 (1위)
닭고기	11,023	15.4 (3위)	3,222	38.1 (1위)

브라질은 1990년대 이후 축산물 생산과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브라질에서 구제역이 점차 사라지고, 유럽, 미국, 캐나다의 BSE 발생으로 유럽, 러시아, 중동 등으로의 수출 확대가 주요 요인이다.

브라질 쇠고기 생산량은 2009년 8,935천톤으로 1999년 6,270천톤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다. 쇠고기 수출량은 같은 기간 461천톤에서 1,596천톤으로 3.5배 증가하였다. 닭고기 생산량은 같은 기간 5,526천톤에서 11,023천톤으로, 닭고기 수출량은 같은 기간 735천톤에서 3,222천톤으로 각각 2배, 4.4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축산업 확대 결과 2009년 브라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모두 세계 최대 수출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2008~2018년간 곡물 생산성 29%, 축산물 생산성 51% 향상을 목표로 기존 농경지의 이용 효율성 제고와 동시에 아마존 지역의 개발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자본집약적 기업형 계열화체계가 발전

칠레, 브라질 축산업의 두 번째 특징은 수출지향적 축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

집약적 기업형 계열화체계가 발전했다는 것이다.

칠레의 대표적 축산물 기업인 아그로수퍼는 생산, 도축, 가공, 유통, 수출의 전 단계가 하나의 경영체계에 의해 통제되는 완전 수직계열화 형태를 갖추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 연간 생산량이 249천톤, 연간 매출액이 550백만달러이다. 칠레 중부지역에 사육농장 1,500개, 중남부에 도계장을 보유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연간 생산량 298천톤, 매출액 639백만달러이다. 양돈장 1,000개소에서 3,300천두의 돼지를 사육하며, 12,000두/일 규모의 도축가공장 2개소가 있다.

아그로수퍼의 성공요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첫째, 완전 통합경영 시스템을 통해 저비용으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율적 경영 및 생산 시스템을 통해 사료의 70%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칠레의 돼지 생체 기준 생산비는 1.1달러/kg로 우리나라 2.30달러/kg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한 8단계의 국제표준규격 적용을 통한 엄격한 품질관리 및 안전성 제고, 상품 생산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둘째, 세계 각국 거래처 수요에 맞춘 제품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도쿄, 제노바, 런던, 애틀랜타, 멕시코시티 등 세계 전역의 주요 도시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소비자 수요 파악 및 현지 업체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파워 제고를 위해서 초창기부터 OEM(주문자생산방식) 생산 대신 자체 브랜드를 통한 생산 판매를 고수하였다.

셋째, 칠레는 동부 안데스산맥, 북부 사막, 남부 남극, 서부 태평양으로 둘러싸인 지리적으로 천혜의 조건을 가진 생산지역으로 광우병, 구제역 등의 각종 가축 질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넷째,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물류 및 비용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생산·가공·유통의 농축산 복합단지를 조성하였다. 예로 칠레 중부에 4천ha규모의 대규모 부지 확보 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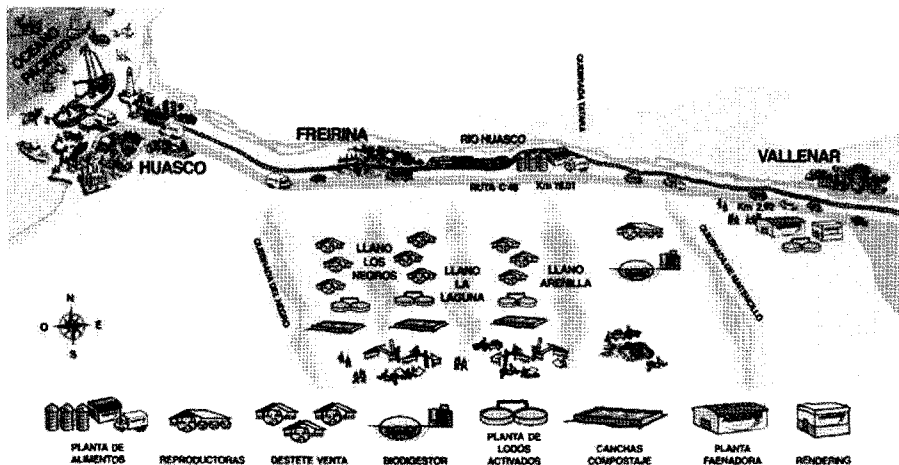
천두 규모의 번식모돈농장 6개소로 이루어진 단지를 조성하고 공동 분뇨처리시설 설치하였다.

단지 주변에는 키위, 포도 등 과수원을 조성하여 분뇨 정화수를 살포하고, 인근 30분 거리 지역에 도축가공시설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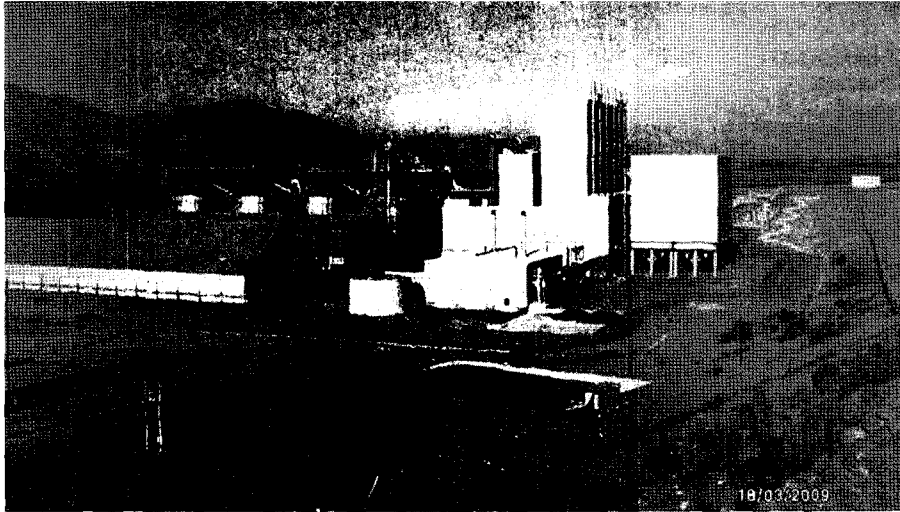
다섯째, 칠레 주요도시에 32개의 냉장유통 터미널(Cold Chain)을 구축하여 신선한 제품을 유통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여섯째, 정부의 지원보다는 경영 및 생산 효율화와 적극적 투자를 통한 자율적 발전을 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형 축산·농업 단지를 건설하는 등 생산 능력 증대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대표적 예가 '비옥한 땅과 성실한 맘으로 만든 농업 유토피아'를 목표로 하여 오염되지 않은 청정 사막에서 친환경적인 농·축산물을 생산, 세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후아



<그림 1> 후아스코 축산·농업도시 조감도



<그림 2> 후아스코 지역 사료공장

스코 친환경 축산-농업 도시 건설이다.

아그로수퍼는 칠레 북부 사막 후아스코(Huasco) 지구에 70km²에 달하는 농업도시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까지 총 6억 달러를 투자하여 생산, 가공, 포장, 선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 지역에서 처리

할 계획이며,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대규모 과수원, 축산 농장, 수출용 농축산물 가공 처리장 등 농축산업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5년 내에 3천여명의 지역 고용 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림 3> 후아스코 지역 모돈농장

<표 2> JBS의 육류별 매출순위 현황

품목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가축	양
순위	세계1위	세계2위	미국3위	세계1위	세계1위
도축장	65	33	3	26	6
일일 도축두수	90.3천두	7.6백만두	48.5천두	91,4천 hides	27.5천두

브라질의 축산업 특히 쇠고기 산업은 생산, 도축, 가공, 유통의 전단계가 하나의 경영체계에 의해 통제되는 완전수직계열화 형태의 기업인 대규모 패커가 주도하고 있다. 총 매출규모로 2007년 상위 5대 패커는 JBS 사, 마르후리그사, 베르틴사, 인테펜덴시아사, 미네르타사 등이다. 그 외 중규모 4,050개, 소규모 500개 이상의 패커가 있다. 도축장은 소 사육두수가 제일 많은 중서부(매드 그르쑈주, 매트그로쑈, 드술주, 고이아스주)를 중심으로 1,600여개가 있다.

브라질에서 도축두수 및 총매출 기준으로 1위 기업인 JBS는 저비용 생산 시스템과 인수합병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추구하는 세계 최대 축산 기업이자 세계 3위 식품 기업이다. 참고로 세계 1위 식품기업은 Nestle, 2위는 Kraft Foods이다. 수출 확대를 위해 규격화되고 최신의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한 결과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2009년에 약 40%에 이르고 있다. JBS의 육류별 매출순위를 살펴보면 쇠고기, 가축, 양은 세계 1위, 닭고기는 세계 2위, 돼지고기는 미국내 3위로 축산물 전 부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JBS의 순이익은 1999년 650백만레알에서 2009년 55,224백만레알로 약 85배가 증가하

였다. 이는 적절한 자본 투자 및 경영 체계 구축을 통해 지난 15년 동안 30개가 넘는 기업을 인수하여 세계 110개국의 육류 시장에 진출한 결과이다. 또한 2007년 상파울로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세계 각국 축산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선진적인 기업 운영 구조를 구축하여 시장 투명성을 강화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은 인수 합병을 통해 최대 육류 생산국들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미국, 이탈리아 등에 생산기반을 확보하였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세계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강력한 위생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 사육 농가는 정부의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해야만 소를 판매할 수 있으며, 정부는 매년 검사를 통해 소를 팔수 있는 농가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그림 4> JBS 도축가공장

◆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세 번째 특징은 기업화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칠레 아그로수퍼는 일관경영체계와 자본집약적 생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양돈의 MSY는 24.5두, PSY는 26두로 우리나라의 15두, 19.8두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와 같은 높은 생산성은 칠레라는 그리 크지 않은 국가가 세계 돼지고기 수출 시장의 2.7%(2009년)를 점유하게 된 원동력이다.

한편, 브라질 육계산업의 사료요구율은 생체 2.2kg기준 1.6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생산비는 0.57달러/kg로 우리나라 1.05달러/kg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역시 브라질이 세계 닭고기 수출 시장의 48.6%(2008년)를 점유하게 된 주요 요인이다.

◆ 저탄소 친환경 녹색기업으로 발전을 추구하며, 사회기여 확대

네 번째 특징은 기업의 주된 목적인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저탄소 친환경 녹색기업으로 발전을 추구하며 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칠레 아그로수퍼는 2000년부터 환경친화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체 R&D 비용의 약 12%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사육 농장과 가공 공장 등에서 사용된 물과 분뇨를 정화해 과수 재배와 축사 청소 등에 이용하고 있으며 돼지 분뇨의 메탄가스를 난방용 에너지와 전

기로 전환하여 이용하고 있다.

탄소 배출권을 농축산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시카고 거래소를 통해 다른 국가의 기업에 판매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감소 인증서를 축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역 사회 주민을 위해서 2001년 아그로수퍼 재단을 설립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브라질과 칠레의 축산업 및 축산 기업은 넓은 토지라는 자연적 이점의 활용, 완전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영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세계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공격적 경영과 투자, 친환경 경영 등을 통해 '9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하였다.

특히 브라질 JBS는 주요 수출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칠레 아그로수퍼는 물류와 자원활용을 효율화한 집약적인 축산단지 조성을 통해 생산 규모를 2015년까지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결과 고품질, 저비용 축산물 생산기업의 대한민국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한·칠레 FTA로 칠레산 돼지고기 관세가 2014년부터 철폐되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해외 축산 기업의 수출 확대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축산업 생산성향상, 축산업 구조의 효율화, 생산자, 소비자, 기업의 상생 등을 위한 논의와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